

TV 미디어 비평의 어제와 오늘:

<미디어비평(KBS)> 10년, 내용분석*

홍원식** · 김은정***

국내 방송에서는 유일한 미디어 상호비평 목적의 고정편성 프로그램 KBS <미디어비평>이 방송 10년을 맞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비평>의 지난 10년 간 방송분의 비평대상과 내용, 비평의 근거, 문제의 귀인 방식을 방송 꼭지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첫째, 메타비평의 형식으로 지난 10년 간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둘째, 경영진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비평의 대상과 비평초점, 프로그램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10년 간 <미디어비평>은 정파적 성향에 기인한 편파보도와 불공정성, 피상적 보도와 받아쓰기 관행 등을 우리 언론의 문제점으로 빈번하게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권교체에 따른 경영진의 변화는 비평대상과 초점에도 영향을 미쳐, 방송 초기에는 보수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의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경영진 교체 이후에는 언론의 상업성에 기인한 과장·선정성과 정보원에 대한 피상적 받아쓰기에 주목·비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미디어 비평, 미디어 상호비평, 메타비평, 미디어 경영, 언론개혁

1. 들어가며

민주사회에서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 유지를 돕는 감시자이자 보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선거나 투표만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여론이 표출되고 경쟁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디어 상호간의 관심과 비평 증대는 민주사회의 제4부 기관으로서 미디어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신문의 비평란을 중심으로 신문과 신문 간,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으로 시작된 국내의 미디어 상호비평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방송의 비평프로그램 신설로 확대되었다. 언론계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 탄생한 방송의 미디어 상호비평 프로그램은 타 언론사와의 견제 심화, 자사비평의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디어 상호비평을 목적으로 고정편성된 프로그램인 KBS의 <미디어비평>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송 10년을 맞이하였다. 2003년 <미디어포커스>라는 프로그

* 본 논문은 한국언론학회, KBS 공동 심포지엄 <TV 매체 비평 10년, 성과와 전망>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wraisong@hotmail.com)

***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겸임교수 (kejima@hanmail.net)

램으로 시작하여 “특집 KBS, KBS를 말한다”로 첫 선을 보인 이래, <미디어비평>, <미디어인사이드>로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꾸준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비평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MBC, EBS 등의 방송에서도 미디어 비평의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방영된 바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미디어 비평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다. 방송사 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미디어 비평을 꾸준히 해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타의 논의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줄 만하다. 명실상부 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의의를 지니고 있기에, 지난 10년의 KBS 미디어 비평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미디어 비평의 역사를 성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방송의 미디어 비평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KBS <미디어비평>에 대한 내용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난 10년간의 <미디어비평>의 분석은 국내 언론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알아보는 일종의 메타분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디어비평>은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중요 기사나 보도 관점을 비평하는 ‘저널리즘 비평’을 다루고 있는 꼭지와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이슈 & 비평’, 그리고 미디어 현장 또는 주요 사건을 영상으로 보도하는 ‘현장’ 꼭지 등 3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저널리즘 비평’과 ‘이슈&비평’에서는 국내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이들 꼭지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 언론이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둘째로, <미디어비평>에 대한 내용 분석은 지난 10년간의 <미디어비평>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평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보도와 달리, 비평하는 주체가 비평하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의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즉, 비평의 주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의 비객관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비평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평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비평의 대상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연 <미디어비평>이 합목적적이며 일관된 비평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즉, 내용분석의 결과는 <미디어비평>에 대한 비평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난 10년간 KBS <미디어비평>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비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국내의 미디어 비평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미디어 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발전상에

1) <미디어포커스>, <미디어비평>, <미디어인사이드>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는 미디어 상호 비평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비평>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포커스>, <미디어인사이드>까지 포괄하여 통칭한다.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및 연구문제

1) 미디어 상호비평의 필요성과 의의

근대 사회의 성립 이후 민주주의 시스템은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 3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실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로 실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할 때, 견제되지 않은 국가권력의 부정과 공공 영역에서의 아노미적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남재일, 2008a). 이러한 민주주의 체계의 보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제4부로서, 미흡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완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서 기능하고 선거 과정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공론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이 곧 언론의 사명이라 할 것이다(Gans, 2003).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디어에 의한 미디어 스스로에 대한 관심 증대는 언론도 정치나 경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용하는 대중의 입장에서도 역시 언론은 막대한 권한 내지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에게 미디어는 과거와 같이 취재보도에 있어 더 이상 성역 내지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관찰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최경진, 2003a).

학자들은 이러한 미디어 간의 관심을 미디어 상호비평이라 지칭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미디어 간 상호비평이 언론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부패와 타락을 효율적으로 막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김기태, 2001, 2003a, 2003b; 윤호진, 2005). 언론도 사회 내의 한 하부체계로서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정부 또는 사법부가 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여전히 언론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언론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언론은 개별 미디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간 상호비평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자율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김기태, 2003a, 2003b).

둘째, 각 미디어는 언론 내부의 사정을 잘 알면서 시민의 관점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남재일, 2005; 최영목, 2005).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정부-언론의 3자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는 주권자로 정부에 통치권을, 언론에 감시와 견제를 위한 발언권을 위임하는 주체로 언론의 활동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언론의 시민적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체는 모호하다. 이상적인 것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감시자들, 예컨대 시민단체나 지식인, 각종 모니터 요원 및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²⁾ 하지만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이 ‘공중이라는 환영’(Phantom of Public)에서 지적했듯이 공중은 내부자(insider)인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고 전문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수가 없다(Lippman, 1925). 취재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진실성 혹은 유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력자 일 수밖에 없다. 취재관행과 같은 직업적 관습은 내부자가 아니면 현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감시도 시민사회를 대신하는 ‘전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전위’는 감시자로서의 공중의 결점을 보완하는 세력, 즉 언론의 내부사정을 잘 알면서 시민의 관점에 설 수 있는 세력은 언론인 자신들이라는 것이다(남재일, 2005). 일각에서는 미디어의 상호비평이 정파성에 매몰되어 정치담론의 하부 담론적 성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언론실천준거를 구축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의 미디어 상호비평이 자사보다는 주로 타사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사 선전의 도구’ 및 ‘정치담론의 하위 담론’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남재일, 2008b),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사의 갈등으로 비춰져 여론을 분열하며(허엽, 2003),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언론혐오증(media malice)을 불러오는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정일권, 2008).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비평적 행위를 수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견지한 미디어 상호비평은 견제와 다원화된 목소리 전달을 통해 권력과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진정한 저널리즘 발전을 견인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심재철, 1999; 김기태, 2001, 2003a, 2003b; 최경진, 2003; 김우룡, 2003; 남재일, 2005, 2008a, 2008b; 최경진, 2003a, 2003b; 최영목, 2005; 윤호진, 2005, 2008; 송경재, 2012).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사기업의 성격을 띠는 주류신문과는 달리, 공공미디어인 방송은 사회 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진정한 공론장(public sphere)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최영목, 2005; 강명구, 2008).

자유주의적 관점의 언론 모델을 시장의 원리에 비유하곤 한다.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사업자가 생존하듯이, 여론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상호 경쟁할 때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미디어의 상호 비평은 수용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공론의 공간에서 수용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기관에서 전달하고 있는 의견의 진위 여부(truthfulness)에 대한 정보, 언론 기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정보, 또한 언론 기관의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방송법에서는 음부즈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방송 편성과 내용에 시청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부즈맨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방송사별로 단순 걸치레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부즈맨 프로그램은 특정 언론사의 내적 감시 체계의 일부로서, 상호 비판을 통한 언론 전반에 대한 견제를 유도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성실성(sincerity)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Yuthas, Rogers, & Dillard, 2002). 미디어간의 상호 비평은 상호 충돌의 과정을 통하여,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론의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 미디어 상호비평의 역사

신문, 잡지가 주를 이루던 미디어 시장에 TV와 같은 방송매체가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디어 간 상호비평은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미디어 상호비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46년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가 발간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of Broadcast Licensees)’이다. 방송사업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하겠다고는 FCC와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방송이 지역과 사회에 대한 공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미흡했으며 지나친 상업주의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 이후 신문의 TV비평이 본격화되었다. 1978년에는 TV비평가 협회(Television Critics Association)이 창립되었고, 미국 내 1,500여 개의 신문들은 현재도 미디어 비평란을 두고 타신문의 논조나 기사, 언론사 정책, 언론인을 비평하고 있다(주창윤, 2001; 송경재, 2008). 그러나 미국 신문의 방송비평은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은 거의 없고 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lby, 1966; Rossman, 1975).³⁾

상업방송이 주를 이루는 미국의 방송에서는 상호비평 프로그램을 찾기 쉽지 않다.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ABC, CBS, NBC 등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상호비평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고, 케이블 방송사 중 일부가 정기적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1992년 CNN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Reliable Source>는 한 주 간 신문, 케이블 뉴스방송, 미국 뉴스네트워크 등에서 나온 뉴스에 대한 리뷰와 비평, 인터뷰를 진행한다. 1997년 Fox사에서 1997년 방송을 시작한 <Fox News Watch>⁴⁾는 한 주 간의 미디어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 정치 스펙트럼에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패널을 초청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신문과 신문 간, 신문과 방송 간의 상호비평이 시작되었다(강명구, 2008). 이전에도 국내의 언론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1990년대까지의 사회 비판은 당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의 비정당성과 부정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3) 셸비(Shelby, 1966)는 1930년~1960년 7개 주요 신문의 방송비평 분석에서 프로그램 리뷰가 41%로 방송산업, 방송제도 비평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지적하였다. 후속연구에서 로스먼(Rossman, 1975)은 1970년대 초에는 리뷰기사가 과거보다 더 증가하여 리뷰 52%, 의견과 칼럼 16%, 프리뷰와 뉴스 18%, 인물과 인터뷰 9%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4) <Fox News Watch>는 2013년 8월 31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유사 프로그램인 <Media Buzz>로 개편되었다 (<http://www.foxnews.com/on-air/media-buzz/index.html>).

있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은 다소 부차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비판 담론은 군사정부라는 절대적 비판 대상이 사라지며 보다 다양한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진 영역이 바로 언론 개혁이다. 1987년 창립된 <한겨레신문>은 창간 때부터 여론매체부를 두고 신문과 방송에 대한 비평을 시작하며 상호비평의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최영목, 2005; 강명구, 2008). 이와 함께 강준만 교수를 비롯한 언론개혁운동 진영이 한국 언론에 대하여 ‘안티조선’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한 것 또한 상호비평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윤호진, 2008).

양승목(2004)은 국내에서 이처럼 언론개혁운동이 활성화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배경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한다. 첫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언론민주화 운동도 탄력을 받게 된 점, 둘째, 민주화로 정부에 의한 정치적 통제는 완화되었으나 언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언론사주와 광고주 등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된 점을 지적한다. 언론개혁운동의 방향이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을 중심으로 주도되면서 ‘언론의 자유’(press freedom)에서 ‘언론인의 자유’(journalistic freedom)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p.69)는 분석이다. 셋째,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반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넷째, 언론 개혁운동 초기에는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주목하였으나 1987년, 1992년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언론의 편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보수 신문이 행정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이 심화되며 점차 신문개혁으로 운동의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이다.

언론개혁 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언론 간 상호 비평의 목소리가 높아진 또 다른 계기는 야당의 집권이후에 나타난 행정부와 언론의 갈등이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후, 초기에 언론사 자율개혁을 강조하던 DJ정부는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864억, 850억, 827억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양승목, 2004). 이는 이들 보수신문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보수진영 전반에서는 이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2001년 세무조사는 언론개혁 운동의 과정에 행정부가 개입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는 언론개혁 운동 전반에 대한 많은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언론개혁에 찬성하던 진보 언론사들과 방송사들 그리고 보수 언론사들의 세무조사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은 미디어 간의 상호 비평이 확장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이는 기존의 신문과 신문 사이에만 존재하던 상호 비평의 공간이 신문과 방송의 상호 비평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방송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미디어 상호비평이 시도되었다. KBS가 <정범구의 시사비평(1999)>에서 한 꼭지로 ‘미디어 비평’ 코너를 고정으로 편성하거나(남재일, 2005), <PD수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언론 비평을 간헐적으로 시도한 바가 있었지만(윤호진, 2008), 미디어 상호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정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후 2001년

4월 28일 MBC에서 먼저 <미디어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언론에 대한 상호 비평을 독립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방송의 상호 비평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KBS의 <미디어포커스>, EBS의 <미디어 바로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생겨났으며 SBS에서도 자체 옴부즈맨 프로그램 중 일부 코너로 미디어 비평을 시작하였다(윤호진, 2008).

<표 1> 종영된 방송의 상호비평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기간	방송시간	종영방송횟수
미디어비평	MBC	2001.4.28-2003.11.7	매주 금요일 밤	118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MBC	2003.11.21-2005.1.7	매주 금요일 밤	48
뉴스플러스 암니옵니	MBC	2005.2.18-2006.5.11	매주 목요일 밤	53
미디어 바로보기	EBS	2003.10.5-2007.2.25	매주 일요일 저녁	168

하지만 이러한 방송의 미디어 비평 역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같은 비평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출범했으나 방송이 지속되며 타 언론사의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자사의 비평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담감⁵⁾ 등이 방송을 오랜기간 지속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하였다. 일례로, MBC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적잖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2004년 12월 이른바 ‘구찌 핸드백 사건’으로 좌초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보수 정권이 재집권하게 되며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이 교체됨에 따라 미디어 비평에 지원되던 많은 부분들이 붕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소멸로 이어졌다(용태영, 2008; 최용익, 2008). 결국,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독립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비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KBS의 <미디어 비평>이 유일하다.

3) 바람직한 미디어 비평의 조건

비평(criticism)은 분석하는 것(to analyze)과 판단하는 것(to judge)을 의미하며 해석, 감상, 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Butler, 2006). 미디어 비평은 프로그램이나 기사에 내재한 형식과 주장, 역사적·심미적 내용 등을 설명해줌으로써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김우룡, 2003). 보도와 편집에 대한 해석기능이 이것이고 또 논쟁이 되는 사안의 보도태도와 해설을 점검하고 비평함으로써 쟁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우룡(2003)은 미디어비

5) “출범 전부터 MBC 내부의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보도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방송사로서 제작부문의 저항은 예상된 것이었다...(중략) 보도부문에서도 대다수 기자들이 ‘쓸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다” (최용익, 2008, p.85)

평이 적어도 해석자, 교육자, 이론가, 감시자,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약한다.

미디어 상호비평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순기능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언론의 자기관련성(self-reference) 극복을 지목한다(최영재, 2004; 최영목, 2005; 남재일, 2005, 2008a; 김기태, 2008). 최영재(2004)는 자기관련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비평은 순기능적 비평 모델과 역기능적 비평 모델로 이원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순기능적 비평 모델은 ‘자성-비평-옴부즈맨-객관적 비평’의 속성을 갖고, 역기능적 비평 모델은 ‘선전-공격-PR-도구적 비평’의 속성을 갖는다. 이 비평모델을 적용해 TV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는 한국 TV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신문의 미디어 기사는 역기능적 모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미디어 비평은 객관적 비평의 성격보다 도구적 비평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는 것이다(남재일, 2005). 이처럼 국내 미디어 상호비평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사 이익과 이념적 정파성에 의한 악용(남재일, 2005; 송경재, 2012), 왜곡된 동업자 정신, 침묵의 카르텔 등 미디어 종사자 자체의 인식부족(김창룡, 2003; 남재일, 2005; 송경재, 2012), 권력의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경영하는 최고경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최영목, 2005; 용태영, 2008; 최용익, 2008; 남재일, 2008b) 등이 지목된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언론이 이상적 상호비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평의 대상, 비평의 주체, 비평의 성격, 비평의 환경 등의 요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남재일, 2005). 비평의 대상은 언론사 조직 및 의사결정과정, 뉴스룸의 취재 및 기사작성 관행, 개별기사 수준 등 언론이 생산한 생산물과 생산행위, 그 생산행위의 기준이 되는 규범까지를 포괄해야 하고(Black, et al., 1995; Merrill, 1997), 비평의 주체는 폭넓은 정보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어야 한다(Iyengar, 1991). 비평은 자기관련성, 도구적 활용성을 극복해야 하고, 비평이 이루어지는 매체공간이 언론활동에 대한 시민의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고지와 시민들의 반응이 수용되는 환경이어야 한다(남재일, 2005, 2008a).

4) 연구문제

앞서 논의한 바,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미디어 상호비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사회의 언론과 정치, 기타 각 부의 권력 간 갈등의 지형이 그대로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내부사정을 인지한 시민의 관점에서 언론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언론권력을 견제하고 비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미디어 상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국내 방송영역의 미디어 상호비평 프로그램은 그 명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상호비평 프로그램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안정적으로 순기능 하도록 하려면, 지금까지의 미디어 상호비평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안에서 문제점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의 미디어 비평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KBS <미디어비평>에 대한 내용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KBS의 <미디어비평>이 우리 방송 내에서 가장 꾸준히 미디어에 대한 상호 비평을 실시해 왔다는 점에서, <미디어비평>의 내용 분석은 국내 언론의 상호비평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미디어비평>이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론사, 비평 주제, 비평의 근거, 문제의 귀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 1] KBS <미디어비평>의 비평 대상, 내용, 비평근거, 문제의 귀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우리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비평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평 언론의 자기관련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관련성이 극복되었을 때, 비평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비평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BS의 <미디어비평>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과연 KBS의 내부변화와 <미디어비평>이 과연 자기관련성을 갖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미디어비평>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연구문제일 것이다. 특히, 국내 공영방송의 특성 상 방송의 내용과 주제가 방송사의 지배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KBS내 최고 경영진의 변화와 <미디어비평>의 내용과 주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미디어비평>의 정당성을 점검해봐야 하는 핵심적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KBS <미디어비평>은 KBS 경영진의 변화에 따라서 비평의 대상과 내용에 어떠한 차별성을 보였는가?

3. 연구방법

1) 내용분석의 대상

2003년 6월 28일부터 시작된 KBS <미디어비평>은 주1회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매 회당 3개의 꼭지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꼭지는 다른 꼭지와 별개의 주제를 다루며 자기 완결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각 꼭지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한 개 또는 복수의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보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인터뷰와 취재 기자의 설명 등을 통하여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의 단위를

‘꼭지’로 설정하였다. 내용 분석은 지난 10년의 방송 기간 동안 방영된 모든 꼭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방송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2> 분석대상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방송 현황

프로그램명	방송기간	진행자	방송시간	방영횟수
미디어포커스	2003.6.28-2008.11.15	김신명숙 (2003.6-2005.4) 이재강 (2005.5-2006.6) 박상범 (2006.6-2007.10) 조현진 (2008.8-2008.11)	매주 토요일 밤 9시	260
미디어비평	2008.11.21-2013.3.29	조현진 (2008.11-2009.2) 이승기 (2009.3-2011.7) 이소정 (2011.8-2013.3)	매주 금요일 밤 11시 30분	183
미디어인사이드	2013.4.7-2013.5 현재	정필모(2013.4-2013.5 현재)	매주 일요일 저녁 5시 10분	방송중

2) 내용분석의 방법

분석된 전체 꼭지 수는 총 1,239개로 나타났다. 1,239개의 꼭지의 기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각 꼭지의 제목과 프로그램 도입부의 개요 설명과 후반부의 결론 제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⁶⁾ 내용 분석은 매 꼭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단순보도/현장소개와 심층분석, 비평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단순보도/현장 소개를 제외하고 비평과 심층분석 꼭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영역, 비평의 대상, 비평의 논조, 비평의 근거, 문제의 귀인, 비평 방식 등의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유목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연구한 김기태(2003)와 윤호진(2005)을 참조하여 기초를 잡은 후,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유목을 수정,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든 내용분석의 유목에 따라서 임의로 선정한 일부 꼭지에 대해서 2명의 연구자가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결과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유목을 수정하였다.⁷⁾ 최종적으로, 607개의 꼭지 중에서 40개의 꼭지를 선별하여 코더간 신뢰도(Holsti's reliability)를 확인한 결과, 각 유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82 수준의 일치도를 보여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⁸⁾

6) 일반적으로 각 꼭지를 시작할 때 진행자의 전체적인 설명이 먼저 제시된다.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되기 어려운 항목은 동영상의 전체적인 논조와 인용하고 있는 언론사, 그리고 포함된 인터뷰 내용 등을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7) ‘비평의 근거’와 ‘문제의 귀인’ 항목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석 유목이 코더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평의 근거 항목에서 ‘피상적 보도’와 ‘받아쓰기’의 유목을 통합하고, ‘과장보도’와 ‘선정보도’의 유목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코더간 차이를 줄였다. 또한, 문제의 귀인 항목에서도 사례 수가 적게 나타나는 ‘자사 이기주의’와 ‘사회적 기준 부재’와 같은 유목들을 기타 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코더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문제 중 하나는 KBS 내부의 변화가 과연 <미디어비평>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국내의 공영방송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영향 하에서 결정되며,⁹⁾ 이는 방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주요 항목들에 대하여 민주당(열린우리당) 정부에서 임명된 서동구, 정연주 사장의 임기 동안과 그 이후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사장의 시기를 구분하여 두 기간 동안의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3) 보도와 비평의 구분

KBS의 <미디어비평>은 대개 3개의 꼭지로 구성된다. 3개의 꼭지 중에는 미디어 현장을 소개하거나, 사건 사고의 장면을 단순 영상으로 소개하는 보도 꼭지와 주요한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여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심층분석 꼭지,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담고 있는 비평의 꼭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1,239개 꼭지 중에서 이슈보도/심층분석으로 분류되는 꼭지의 수는 311개로 전체 꼭지 중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평으로 분류되는 꼭지의 수는 607개로 나타나서 전체 꼭지 49.0%로 나타났다. 많은 방송사들이 옴부즈맨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들이 대부분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방송 현장을 소개하는 등 곁핍식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미디어비평>은 이들 프로그램들과 차별되어, 미디어 상호 비평을 표방한 프로그램답게 단순보도와 현장소개 보다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평과 심층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꼭지 분류

		꼭지 분류				전체
		단순보도/ 현장소개	이슈 보도/ 심층 분석	비평	기타	
전체	빈도	218	311	607	103	1239
	%	17.6%	25.1%	49.0%	8.3%	100.0%

8)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주제별 코드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평의 대상, .84; 비평 내용 분류, .80; 비평의 근거, .82; 문제의 귀인, .78)

9) 초대 MBC<미디어비평> 팀장을 지낸 최용익(2008)은 <미디어비평>에게는 MBC의 전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최전방에서 즉발신문으로부터 날아오는 악의적 비방의 총탄을 뚫고 전진해야하는 역할이 주어졌었다고 회상하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투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최우선적 배치였다고 지적했다. 전 사적 지원체제와 탄탄한 인적구성의 평가위원단, <미디어비평>팀의 헌신 등 회사 내외부 조직적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서 <미디어비평>은 고사위기를 겪는다. <미디어비평>을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선상에 놓는 단순한 접근방식이 제작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고 결국은 소멸단계로 접어들게 했다는 것이다.

미디어 비평이 사회적 의의를 갖는 것은 미디어간의 상호 비평과 수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궁극적으로 공론의 영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단순보도/현장소개 보다는 이슈 보도/심층 분석과 비평 쪽지가 <미디어비평>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일 것이다. 분류 결과, 전체 쪽지들 중에서 단순보도/현장소개를 제외하면 총 918개 쪽지가 미디어에 대한 심층분석 또는 비평을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비평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포함하는 ‘비평’의 쪽지이다. 쪽지 분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607개의 쪽지가 언론에 대한 ‘비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추출된 607개의 ‘비평’ 쪽지에 대해서 다음의 항목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비평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디어비평>에서 어떠한 언론기관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비평대상은 언론전반, KBS, MBC/SBS, 지상파방송 전반, 보수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진보신문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신문사 전반, 케이블방송사, 포털/인터넷, 기타 언론사, 행정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정보원, 언론정책/규제기관, 권력기관(검찰, 경찰 등), 기타 언론단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표 4>에서는 <미디어비평>에서 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언론사/언론관련 기관을 분석해 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쪽지에서는 특정한 언론 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언론 전반’을 비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쪽지의 59.8%가 언론 전반에 대한 비평을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사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던 쪽지가 전체 15.2%로 나타났으며, 조중동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문사 전반’이 비평의 대상이었던 쪽지도 전체의 5.8%를 차지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KBS 자사에 대한 비평은 3쪽지 뿐이었고, 타 지상파 방송사 또는 지상파 방송사 전반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던 쪽지도 각각 2.0%와 5.8%로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평이 비평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결국 <미디어비평>에서 주요 비판 대상이었던 것은 신문이고 그 중에서도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신문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비평>은 초기 방송에서 ‘조중동의 무가지 살포(03/7/5)’, ‘친일언론 관련 논쟁(03/8/23)’, ‘탄핵의 숨은 주역, 보수신문(04/3/20)’ 등 조중동을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제공하였다. 이는

<표 4> 비평 대상 분류 (Chi-Square=107.99, df=14, p=.000)

		기간			
		정연주 해임 이전	이병순 임명 이후	전체	
비평 대상	언론 전반	빈도	202	161	363
		%	61.6%	57.7%	59.8%
	KBS	빈도	1	2	3
		%	0.3%	0.7%	0.5%
	MBC/SBS	빈도	4	8	12
		%	1.2%	2.9%	2.0%
	지상파 방송 전반	빈도	4	31	35
		%	1.2%	11.1%	5.8%
	조중동 등 보수 신문사	빈도	83	9	92
		%	25.3%	3.2%	15.2%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신문사	빈도	1	0	1
		%	0.3%	0.0%	0.2%
	신문사 전반	빈도	12	23	35
		%	3.7%	8.2%	5.8%
	케이블 방송사	빈도	1	0	1
		%	0.3%	0.0%	0.2%
	포털/인터넷 언론	빈도	1	8	9
		%	0.3%	2.9%	1.5%
비평 대상	기타 언론사	빈도	14	14	28
		%	4.3%	5.0%	4.6%
	행정기관, 대기업 등 정보원	빈도	0	4	4
		%	0.0%	1.4%	0.7%
	언론 정책/규제기관	빈도	1	9	10
		%	0.3%	3.2%	1.6%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	빈도	1	4	5
		%	0.3%	1.4%	0.8%
	기타 언론 단체	빈도	0	1	1
		%	0.0%	0.4%	0.2%
	해당 사항 없음	빈도	3	5	8
		%	0.9%	1.8%	1.3%
전체	빈도	328	279	607	
	%	100.0%	100.0%	100.0%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국내 신문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미디어비평>이 보수 신문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역비평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비평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이병순 사장 이후의 <미디어비평>의 비평 대상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간에 따라서 비평의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두 기간 동안의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상은 ‘조중동 등 보수 신문사’ 항목이다. 이병순 이전까지의 기간에서는 ‘조중동 등 보수 신문사’를 특정하여 비평한 쪽지가 전체 25.3%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서는 3.2%로 매우 적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조중동이 언론 전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비평>이 보수 언론을 특정하여 지칭하기 보다는 ‘신문사 전반’의 문제로 포장하여 지칭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신문사 전반’의 항목을 보면 이병순 사장 이전 기간에는 3.7%였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8.2%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 언론사에 불필요한 적대감을 일으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나, <미디어비평>이 초기에 가졌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비평의 구체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일례로, 다음의 4대강 관련 기사에 대한 <미디어비평>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된다.

(13/02/01) 4대강 관련 보도의 문제점

<질문>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동안 언론이 4대강 사업을 보도해온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답변> 네, 5년 전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뜬 이래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 내용은 크게 **찬성과 반대, 두 입장으로 나뉘며 여론을 혼란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 (중략)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언론 역시 그 보도가 정치 논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적 접근이 아닌, 공방식 보도, 정치 논리에 의한 기사가 쏟아졌던 겁니다. 자칫 **언론이 과거의 보도 태도, 입장차 때문에 축소 보도를 하거나, 비판만 앞세운 보도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위의 비평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는 가운데, 비평의 핵심은 보수 언론의 행태를 비평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찬성과 반대’ 또는 ‘정치적 공방’ 등의 틀 속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기계적 균형 또는 양비론적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에 대한 비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 대한 비평 중에서 KBS의 자체 비평을 다루는 것은 단 3 쪽지뿐이며, 타지상과 방송사를 비판하는 쪽지도 12개 쪽지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전반을 비평하는 쪽지는 총 35개 쪽지이며, 그 중에서

도 31개의 꼭지가 이병순 사장 이후의 시기에 방송되었다. 이는 방송 비평에 있어서도, 특정 방송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비평하기 보다는 전체 지상과 방송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좋은 비평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가 비평의 대상과 목적이 초점을 갖고 구체화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원용진, 2000), <미디어비평>이 비평의 대상을 현재와 같이 ‘언론 전반’ 또는 ‘보수-진보 양론’으로 포괄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2) 비평의 내용

다음으로 <표 5>는 비평의 내용이 정책, 윤리/관행, 언론기관, 외부기관, 특정 인물 비평 등과 같은 영역 중에서 어느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먼저 언론의 윤리 및 행태를 비평하는 꼭지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비평 꼭지 중 91.6%가 언론의 윤리 및 행태를 비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 언론기관을 비평하는 꼭지가 3.6% 그리고 언론 정책을 비평하는 꼭지는 2.1%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이병순 사장 이후 언론 윤리 및 행태 비평은 다소 줄어든 반면 언론 정책 비평과 특정 언론기관 비평의 꼭지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 정책의 경우는 2008년 이후 방송법 개정 등의 논쟁과 관련하여 언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종편 채널의 도입과정에서 이를 비평하는 꼭지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이후 IPTV의 도입, 종편채널 도입 등 방송 사업자들의 증가되며, 이에 따라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미디어 사업자들의 이해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특정 언론기관 비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일부 꼭지들을 살펴보면, ‘SBS 스포츠 중계권 독점 비판’(2010/2/5, 2010/3/5, 2010/6/18), ‘종편 채널의 문제점’(2011/11/4, 2012/3/30), ‘매경-한경 갈등’(2013/2/22)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의 공통점은 미디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호 충돌이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스포츠 중계권 논란은 지상과 방송사들의 침해한 이해 대립이 발생한 사건들이고, 종편 채널의 경우는 기존 방송사들과 방송 사업에 신규 진입한 신문 사업자들의 갈등이 대립된 사안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해당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상호 비난과 논쟁도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2008년 이후 <미디어비평>에서 특정 언론기관을 비평하는 꼭지가 많았던 이유가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해갈등이 확산되는 현 미디어 산업의 상황과 무관치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5> 비평의 내용 분류 (Chi-Square=22.653, df=6, p=.001)

			기간		전체
			정연주 해임 이전	이병순 임명 이후	
비평 내용	언론/미디어 정책 비평	빈도	3	10	13
		%	0.9%	3.6%	2.1%
	언론/미디어 윤리 및 행태 비평	빈도	313	243	556
		%	95.4%	87.1%	91.6%
	특정 언론기관 비평	빈도	6	16	22
		%	1.8%	5.7%	3.6%
	영향을 미치는 외부 기관 비평	빈도	1	5	6
		%	0.3%	1.8%	1.0%
	특정 인물 비평	빈도	2	0	2
		%	0.6%	0.0%	0.3%
	기타	빈도	1	5	6
		%	0.3%	1.8%	1.0%
	해당 사항 없음	빈도	2	0	2
		%	0.6%	0.0%	0.3%
전체		빈도	328	279	607
		%	100.0%	100.0%	100.0%

요약하자면, 지난 10년의 <미디어비평>은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언론 윤리와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 속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관심이 조금씩 언론 정책과 언론 기관의 조직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경향들을 보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행태와 현상적 문제점 중심의 접근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적 접근으로 변화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미디어비평>이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KBS의 이해를 대변하는 창구로 일정부분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3) 비평의 근거

비평은 단순 보도와 달리 대상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비평의 주체가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내린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평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체 비평 쪽지 중 96.4%가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고,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쪽지는 전체 3% 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디어비평>에서 제시한 근거들이

대부분 언론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표 6>은 <미디어비평>에서도 비평을 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다양한 근거들이 고르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편파, 불공정 보도’의 항목(18.6%)과 ‘과장 선정적 보도’의 항목(18.1%)으로 나타났다.

<표 6> 비평의 근거 분류 (Chi-Square=79.017, df=8, p=.000)

		기간			
		정연주 해임 이전	이병순 임명 이후	전체	
비평 근거	오보 및 부정확한 보도	빈도	29	32	61
		%	8.8%	11.5%	10.0%
	편파 불공정 보도	빈도	88	25	113
		%	26.8%	9.0%	18.6%
	피상적 보도/ 받아쓰기	빈도	34	51	85
		%	10.4%	18.3%	14.0%
	과장 선정적 보도	빈도	47	63	110
		%	14.3%	22.6%	18.1%
	사실 왜곡 보도	빈도	29	16	45
		%	8.8%	5.7%	7.4%
	사회 갈등 조장	빈도	33	22	55
		%	10.1%	7.9%	9.1%
	언론 자유/독립성 훼손	빈도	1	10	11
		%	0.3%	3.6%	1.8%
비평 근거	기타 언론 윤리 훼손	빈도	57	24	81
		%	17.4%	8.6%	13.3%
	해당 없음	빈도	10	36	46
		%	3.0%	12.9%	7.6%
전체	빈도	328	279	607	
	%	100.0%	100.0%	100.0%	

‘편파, 불공정 보도’의 항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언론의 문제점으로 신문의 과도한 정파적 성향이 자주 지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이다. 내용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미디어비평>에서도 우리 언론의 과도한 정파성을 가장 주요한 문제로 시청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성에 약간의 변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정연주 사장 해임 이전의 기간에는

‘편파 불공정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쪽지의 비율이 26.8%였지만, 그 이후의 기간에는 9.0%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장 선정적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은 14.3%에서 22.6%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상적, 받아쓰기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도 10.4%에서 18.3%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의 <미디어비평>이 언론개혁의 흐름 속에서 출발하여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의 편파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최근에는 보수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보편적 문제인 상업성과 전문성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제기에 좀 더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KBS의 정치적 성향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2008년 보수정권의 복귀가 KBS <미디어비평>의 관점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보수정권 복귀 이후에도 <미디어비평>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주요 관심 사항이 조중동의 보수적 정파성에서 기인한 ‘편파, 불공정 보도’ 대한 비판에서 한국 언론 전반의 속성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어 간 것은 분명 KBS의 지배구조 속성과 연결 지어 해석할 만한 여지를 갖고 있다.

<표 7> 주제 영역에 따른 비평의 근거

영역	주요 비평 근거 1	주요 비평 근거 2
정치 (n=77)	피상적, 받아쓰기 24.7%	편파 불공정 보도 18.2%
선거 (n=42)	피상적, 받아쓰기 26.2%	편파 불공정 보도 23.8%
경제, 부동산 (n=60)	편파 불공정 보도 31.7%	과장, 선정적 보도 13.3%
사회, 문화 (n=119)	과장, 선정적 보도 29.4%	편파 불공정 보도 17.6%
교육, 과학 (n=37)	피상적, 받아쓰기 18.9%	편파 불공정 보도 16.2%
언론, 미디어 (n=163)	기타 언론 자유 훼손 20.9%	편파 불공정 보도 17.2%
스포츠 (n=24)	기타 언론 자유 훼손 29.2%	과장, 선정적 보도 20.8%
북한, 국방 (n=31)	오보, 부정확한 보도 51.6%	편파 불공정 보도 16.1%
해외 (n=15)	피상적, 받아쓰기 26.7%	과장, 선정적 보도 26.7%

위의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각 주제 영역에 따른 비평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참조). 먼저,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피상적, 받아쓰기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편파, 불공정 보도’의 비율이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영역에 대해서도 정치 영역과 유사하게 ‘피상적, 받아쓰기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편파, 불공정 보도’의 비율이 23.8%를 차지하였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편파, 불공정 보도’에 해당되는 쪽지가 19건 (31.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과장, 선정 보도’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 국방 영역에서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16건, 51.6%).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주제 영역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분석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청와대, 정당, 행정기관 등의 취재원과 언론의 유착으로 인하여, 언론이 가져야 하는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또한 과도한 정파적 성향으로 인한 고질적인 편파보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잘 나타난다. 정치와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 정보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단순히 취재원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피상적으로 옮기고 있는 우리 언론의 고질적 행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의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념적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서 언론의 정파적 성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동안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며 그 원인에 대해 보수언론이 ‘강성 노조의 탓’으로 또는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 때문으로 보도하였던 것과 FTA체결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사에 따른 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사건, 사고를 다루는 사회,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 선정적 보도’ 경향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의례히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의 제시보다는 현상적인 문제를 과장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강조하는 언론의 행태를 <미디어비평>이 적절히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국방’의 영역은 언론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보 통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열차 관련 추측기사 난무’(06/1/21), ‘김정은 관상보도 논란’(10/10/8)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언론이 쏟아내는 많은 기사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된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문제의 귀인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메시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개의 테두리를 갖는 동심원의 모델로 설명하였다. 가장 크게는 사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요인부터, 언론 외부의 규제, 산업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 언론사 내부의 조직적 특성, 언론의 관행(routines), 끝으로 개별적 언론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메시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미디어비평>에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들도 이와 같은 동심원적 영향 하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에서는 이러한 동심원적 영향 요소들 중에서 특정한 원인을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고민하는 일종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Iyengar, 1991; Entman, 1993).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미디어 비평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KBS <미디어비평>이 언론의 문제를 어떻게 귀인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내용분석을 통하여 <미디어비평>의 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비평>에서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원인은 ‘언론의 관행’이다. 특히, 국가기관 및 정당 등 권력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갖기 보다는 취재원과 기자의 긴장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비판적 관점의 부재는 정보원이 전달하는 자료를 단순히 받아쓰는 피상적 보도 행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원인은 언론의 상업성과 같은 구조적 속성이다. 전체 비평 중에서 23.9% 쪽지가 언론의 상업적 속성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우리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디어비평>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었던 ‘부동산 보도의 문제점’(05/6/18, 06/12/13, 09/9/11, 10/1/22, 10/4/30, 1/06/18 등)에 대한 비평은 건설 회사 광고에 의존하는 우리 신문이 그러한 광고 의존적 속성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과장 보도와 오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원인은 기자들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체 9.6%의 쪽지가 이 부분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와 교육 과학, 그리고 북한 국방의 주제 영역에서 이러한 원인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다른 주제 영역도 그러하지만, FTA와 같은 국제 통상의 문제와 교육, 과학, 그리고 북한 관련 문제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고는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사에서 전문 기자를 두어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언론은 피상적 보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미디어비평>에서 언론인의 전문성과 능력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6월 29일 방송된 다음의 대목은 <미디어비평>의 이러한 지적을 잘 보여준다.

<표 8> 문제의 귀인 분류 (Chi-Square=69.807, df=9, p=.000)

		기간			
		정연주 해임 이전	이병순 임명 이후	전체	
주제	언론의 관행 (권력과 언론 관계 등)	빈도	106	108	214
		%	32.3%	38.8%	35.3%
	언론의 구조적 문제	빈도	102	43	145
		%	31.1%	15.5%	23.9%
	언론의 정파성, 폐쇄성	빈도	24	29	53
		%	7.3%	10.4%	8.7%
	언론사 사주 등 특정인 영향력	빈도	4	0	4
		%	1.2%	0.0%	0.7%
	기자, 방송제작자의 부도덕	빈도	17	4	21
		%	5.2%	1.4%	3.5%
	언론 자유/독립성 보장 안됨	빈도	2	10	12
		%	0.6%	3.6%	2.0%
	사회적 기준, 감시 부재	빈도	5	10	15
		%	1.5%	3.6%	2.5%
	언론의 전문성, 경험 부족	빈도	23	35	58
		%	7.0%	12.6%	9.6%
기타	빈도	37	10	47	
	%	11.3%	3.6%	7.8%	
해당없음	빈도	8	29	37	
	%	2.4%	10.4%	6.1%	
전체	빈도	328	278	606	
	%	100.0%	100.0%	100.0%	

(12/06/29)

<미디어비평>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자주 지적된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언론비평을 통해 가장 자주 제기된 문제점은 취재원의 말이나 발표내용을 단순히 받아쓰거나 중계하는 방식의 보도태도로 전체 비평아이템 113건 가운데 46%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언론이 이같은 보도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사회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전문기자 그룹의 취약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미디어비평>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원인 중에서 언론사 사주의 과도한 영향력과 언론인의 비윤리성, 그리고 언론 자유/독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MB 정부 이후 우리 언론의 자유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지금까지 방송 10년을 맞이한 KBS의 <미디어비평>이 어떠한 내용을 방송해왔는지 내용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언론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출발한 KBS <미디어비평>은 미디어 상호 비평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처음부터 다른 영역보다 언론의 행태에 집중하여 그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비평을 전개해왔다. 비평 속에서는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주요한 문제를 고르게 지적하는 가운데, 우리 언론의 과도한 정파적 성향에서 기인한 ‘편파보도와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으며 ‘피상적보도와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지적도 많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우리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권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언론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이와 함께 언론의 상업적 속성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미디어 비평>의 비평 대상과 비평 초점은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였으나, 보수정권의 등장에 따른 KBS 경영진 변화 이후부터는 특정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우려 보다는 우리 언론 전반의 보편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비평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언론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편파, 불공정성’의 문제 보다는 언론의 상업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과장, 선정성’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언론의 ‘피상적, 받아쓰기’ 보도 경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미디어 상호 비평을 해온 방송 프로그램은 KBS <미디어비평>이 유일하다는 점만으로 그 성과는 높이 평가될 만하다. 주창윤(2001)이 지적했듯, 우리보다 방송 역사가 오래된 미국과 같은 방송환경에서도 지상파방송에서 미디어 비평 전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타 미디어의 뉴스나 논조를 비평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미디어 업계의 경쟁 속에서 상호 비평을 통하여 우리 언론의 잘못된 저널리즘의 행태를 시정하고 언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숭고한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상호 비평에 따른 상대 언론사의 견제와 감시에 대한 부담감과 극적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꾸준히 지난 10년간 미디어 비평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평가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미디어비평>은 우리 언론의 문제에 대한 결코 가볍지 않은 지적과 분석,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고질적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 언론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비평>의 목소리가 더욱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스스로의 성찰을 위한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먼저 지난 10년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KBS <미디어비평>의 문제의식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KBS의 내부 변화에 따른 내적 일관성의 결여로 해석될 만한 여지를 갖고 있다. 즉, <미디어비평>이 출발하였던 2003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보수 언론의 여론지배와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비평>에서 보수 언론에 대한 비평이 예전에 비해 덜 신랄하고 덜 구체적인 것은 KBS의 내적변화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비평에 있어서 비평의 합목적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설득력 있는 비평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KBS의 <미디어비평>이 우리 저널리즘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상호 비평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자사를 홍보하거나 이해득실에 따라서 타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KBS <미디어비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미디어 상호 비평의 공간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KBS 내부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자사의 이해득실을 떠난 공정성이 <미디어비평>의 목소리를 더욱 울림 있게 만들 것이다.

국내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비평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제 비평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유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내용분석 기획, 분석유목 구성, 이론적 근거를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른 KBS의 <미디어 비평> 이외에도 신문, 케이블TV의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저널 등의 상호비평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미디어 비평의 자료가 축적되어 직접분석을 통해, 혹은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와 평가가 가능해진다면 좀 더 다각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우리 언론과 사회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강명구(2008). 성찰적 미디어비평을 위하여.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사회, 미디어 상호비평을 되돌아본다」 발제집, 2~13.
- 김기태(2001). TV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점검. 「언론개혁」, 여름호, 21세기언론연구소.
- 김기태(2003a). MBC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1회~99회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미디어 비평과 한국의 TV저널리즘」 발제문, 39~53.
- 김기태(2003b). 매체비평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 KBS 「미디어포커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KBS 공동심포지엄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현황과 과제』 발제집, 83~107.
- 김기태(2008). 미디어 상호비평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적 의미.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사회, 미디어 상호비평을 되돌아본다』 발제집, 17~27.
- 김우룡(2003). 방송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비평한다. 한국방송학회 쟁점과 토론 『텔레비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현실과 쟁점』 발제집, 1~13.
- 김창룡(2003). TV 저널리즘과 미디어 비평.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미디어 비평과 한국의 TV저널리즘』 발제문, 3~13.
- 남재일(2005). 『미디어 상호비평의 지형(연구서 2005-11)』. 서울: 한국언론재단.
- 남재일(2008a). 한국 언론의 미디어 상호 비평의 현실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사회, 미디어 상호비평을 되돌아본다』 발제집, 31~49.
- 남재일(2008b). 미디어비평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과 방송』, 2008년 9월호, 18~21.
- 송경재(2008). 해외의 미디어 상호비평. 『신문과 방송』, 2008년 9월호, 48~51.
- 송경재(2012).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 언론을 살리는 길, 상호비평: 한국 미디어 비평의 현재 진단. 『신문과 방송』, 9월호, 66~70.
- 심재철(1999). 미디어 비평과 언론교육의 방향. 『관훈저널』, 1999년 봄호, 191~204.
- 양승목(200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언론정보연구』, 41. 61~89.
- 용태영(2008). 미디어 포커스: 부담과 보람의 5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사회, 미디어 상호비평을 되돌아본다』 발제집, 75~80.
- 원용진(2000).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
- 윤호진(2005). 텔레비전 매체비평 프로그램 분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매체 간 상호비평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집, 18-29.
- 윤호진(2008). 미디어 상호비평의 내용적 특성과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사회, 미디어 상호비평을 되돌아본다』 발제집, 53~71.
- 주창윤(2001). 미국언론의 매체비평. 『관훈저널』, 여름호, 77~84.
- 정일권(2008). 위기의 미디어 상호비평: 방송·인터넷관련 10개 신문사설 분석. 『신문과 방송』, 9월호, 38~43.
- 최경진(2000). 미디어 저널리즘의 자기 관련성. 『언론과 사회』, 9권 1호, 98~127.
- 최경진(2003a). '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한 미디어 담당기자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136~161.
- 최경진(2003b). 『외국방송의 비평 관련 프로그램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편).
- 최영목(2005). 미디어 간 상호비평의 현실과 전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매체 간 상호비평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집, 2~16.
- 최영재(2004). TV 매체 비평 프로그램의 정치 사회학. 『방송문화연구』, 16권 2호, 1~16.
- 최용익(2008). 현업에서 바라본 미디어 상호비평의 어제와 오늘.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사회, 미디어 상호비평을 되돌아본다』 발제집, 83~87.
- 한국언론정보학회(편)(2003). 『<미디어비평>과 한국 TV저널리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허엽(2003). 매체비평 프로그램의 현실과 쟁점: KBS<미디어포커스>와 MBC<미디어비평>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겨울호, 86~103.

- Black, J., Steele, B., Barney, R. D., &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US). (1995). *Doing ethics in journalism: A handbook with case studie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utler, J. G. (2006). *Television: Cri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Psychology Press.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ns, H. (2003). *Democracy and the News*. NY: Oxford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Lippmann, W. (1925). *The Phantom Public*. NY: Macmillan.
- Merrill, J. C.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news media*. NY: St. Martin's Press.
- Rossmann, J.(1975). The TV critic column: Is it influential?. *Journal of Broadcasting*, 19(4), 401-411.
- Shelby, M. E.(1966). Patterns in thirty years of broadcasting criticism. *Journal of Broadcasting*, 11(4), 27-40.
- Shoemaker, P. & Reese, S. (1996). *Mediating the Message*. NY: Longman.
- Yuthas, K., Rogers, R., & Dillard, J. F. (2002). Communicative action and corporate annual repor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1(1), 141-157.

Reliable Sources(CNN) 홈페이지 <http://reliablesources.blogs.cnn.com>

Media Buzz(FOX) 홈페이지 <http://www.foxnews.com/on-air/media-buzz/index.html>

(투고일자: 2013. 8. 31, 수정일자: 2013. 10. 14, 게재확정일자: 2013. 10. 18)

ABSTRACT

Media Criticism on TV for the Last 10 Years: A Content Analysis of <Media Criticism(KBS)>

Won-Sik Hong* · Eun-Jung Kim**

It has been 10 years since KBS first broadcasted TV program <Media Criticism>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mutual criticism among Korean mass media.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KBS <Media Criticism> episodes for the last 10 year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what the program had showed us in the aspects of ‘the subject of criticism’, ‘the ground of criticism’, ‘the attribution of criticism’. The content analysis could show meaningful results to the study of media criticism, because it not only provides a meta-analysis of the problems Korean mass media have had for the last 10 years but also examines the program has been consistent in the regard of criticism fair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Media Criticism> has pointed out the practices of unfairness, political bias and superficial and shallow reporting as the most critical problems the Korean mass media have. Also, the result showed that <Media Criticism> had not been consistent in the regards of ‘the subject of criticism’, ‘the ground of criticism’, ‘the attribution of criticism’. While the program mostly focused on the problems of political bias and unfairness in the early stage, the focus of criticism moved to the problems of sensationalism and superficial reporting later.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change of criticism might have a relation with the change of KBS governance.

Keywords: Media Criticism, Mutual Criticism, Meta-Criticism, Media Management, Press Reform

* Assistant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